기업 애로사항 · 규제 해소 노력

김종훈 전북도 정무부지사 전주상의서 기업인 간담회
기업인들, 시군 보조금 선지급 방안 마련 등 건의

김종훈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전주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30여명의 기업인들을 만나 다양한 애로사항을 파악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종훈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전주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30여명의 기업인들을 만나 다양한 애로사항을 파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신규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국비의 경우 70% 이상을 선지급하고 있는 반면 도비를 비롯한 시군의 보조금은 완공 후 지급토록 되어 있다"고 말하고 "초기에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비를 비롯한 시군의 보조금을 선지급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기업인들은 1980년대 설립된 전주 제2산업단지 인근에 만성택지지구가 최근 조성돼 환경민원의 급증으로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하고 방음벽 설치 등 지자체의 기업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완주산업단지 주변의 경우도 도시화에 따라 악취 배출허용기준의 적용범위를 1km에서 500m로 완화돼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전주시내 상습 교통정체지역에 많아 근로자들의 출퇴근의 어려움은 물론 물류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해소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기업인들이 서울 및 수도권 출장시 이용하고 있는 KTX전라선 열차의 증편과 전라선에 SRT가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전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하는 등 각 분야의 애로사항을 개진하며 열띤 토론의 장이 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윤방섭 회장은 "기업들이 처한 어려움을 잘 헤아려 주시고 아울러 위기에 몰린 지역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전북경제가 회생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펼쳐줄 것"을 호소했다.

김종훈 정무부지사는 "민선8기 전라북도는 도민경제 부흥을 도정의 제1목표로 삼고 대기업 유치와 더불어 기업하기 제일 좋은 전북으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 기업인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기업애로와 규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기업인들을 매월 방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수 기자

추석 선물세트 최대 20% 할인

농협몰, 9월 6일까지 'NH농협카드 즉시할인 기획전'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농산물 전문 온라인쇼핑몰 농협몰(www.nonghyupmall.com)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오는 9월 6일까지 'NH농협카드 즉시할인 기획전'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추석 인기상품인 사과·배, 샤인머스켓 등 과일세트와 한우, 법성포 굴비 등 다양한 선물세트를 판매하며, 행사상품을 NH농협(채움)카드로 결제하면 누구나 20%(최대 2만원)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농협몰 방문일수에 따라 최대 3,000원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해피 추석 출석체크', △구매실적 상위 100명에게 우리 농산물 경품을 제공하는 '구매왕 이벤트', △오전 10시부터 하루 3번 실시되는 '타임세일', △매일 10%(최대 3천원) 할인 혜택을 주는 '하루특가 이벤트' 등 풍성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이 밖에도 농협몰 내 e-하나로마트를 통해 농협하나로마트에서 판매중인 2022년 추석 선물세트를 온라인으로 쉽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받으시는 분의 주소지에서 가까운 매장의 상품을 선택해 주문할 수 있어 신선한 상품을 빠르게 선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재호 본부장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물가급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우리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자 이번 기획전이 마련됐다"며 "소비자들이 명절의 의미와 온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산지유통혁신 밸류체인 고도화모델 최다 배출

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 등 4개 모델

전북도(도지사 김관영)와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농협중앙회에서 개최된 산지유통혁신 밸류체인 고도화모델 선발에서 8개 모델 중 전국 최다인 4개 모델이 최우수모델로 배출되는 쾌거를 올렸다고 22일 밝혔다.

산지유통혁신 밸류체인 고도화모델 육성 프로젝트는 농협중앙회 주관으로 농협형 체인본부 구축을 위한 전국 산지 조직·시설·인력 혁신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여 농협 중심의 산지유통 대변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수취가 제고', '생산비 절감' 고도화 선도모델 20개 유형에 부합하는 조직을 선정하는 사업이다.

이번에는 산지 전문화, 사업간 연계·협력, 지역특화사업 부문에서 8개 유형별 1개 조직을 최우수조직으로 선정했으며, 그 중 온라인 맞춤형 시장대응(익산원예농협 조합장 김봉학), 산지조직 계열화(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엄귀섭), 조공법인 사업전략 고도화(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백남정), 지역 특화사업-수취가제고(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김석중) 4개 유형에서 전북 관내 조직이 최우수 조직으로 선정되는 기염을 토해 산지유통 분야에서 전북의 위상을 높였다.

정재호 본부장은 "전국에서 8개 조직만 선정하였는데, 그중 절반인 4개 부문에서 전북이 1위를 수상하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지자체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난 2012년부터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합마케팅의 주체로 육성하였던 것인 만큼 전북도와 14개 시군 지자체에 이 영광을 돌린다"며, "나머지 12개 부문에서도 전북의 농협과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최우수조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를 토대로 우수사례를 전북 각 산지에 전파하고 벤치마킹하게 함으로써 전라북도 산지유통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재훈기자

국내 최대 식품문화축제, 익산서 개최

NS쿡페스트, 익산시-NS홈쇼핑 공동주관 10월 20일
외식업체 대상 미식식당전 '익산 닭요리대전' 신설

국내 최대 식품문화축제 'NS쿡페스트'가 익산에서 열려 대한민국 식품산업 메카로 위상을 높여나간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NS홈쇼핑 'NS쿡페스트(Cookfest)가 익산시와 NS홈쇼핑의 공동주관으로 오는 10월 20일 익산에서 개최된다.

'NS 쿡페스트'는 국내 최대 규모의 요리 경연과 함께 다양한 먹거리 정보,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어 식품문화축제로 자리 잡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2008년도부터 해마다 하림그룹 유통 전문기업 NS홈쇼핑 주관으로 서울에서 진행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익산에서 열린다.

시는 이번 'NS 쿡페스트' 축제를 통해 글로벌 푸드&애그리비즈니스(GLOBAL FOOD & AGRIBUSINESS) 기업인 하림그룹의 본사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자리하는 '대한민국 대표 농·식품' 메카로서의 도시 위상을 한층 더 높여나 갈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행사는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하림 퍼스트키친(first kitchen) 일대에서 이뤄진다. 요리경연 본선 진출자 100팀(2인1팀)이 요리 경연에 참여한다.

이 밖에도 미식투어, 홍보부스, 라이브 스테이지 등 익산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 경연 참가자와 관광객에게 색다른 행사를 즐길 수 있을 예정이다.

요리경연 서류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19일까지이며, 서류심사를 통해 26일 본선 진출자가 발표된다. 요리경연의 주제는 '자연의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한 가장 맛있는 레시피'이며, 대상 상금이 3,000만원 총상금은 1억 1,5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이번에는 '닭'을 주제로 지역 맛집을 발굴하는 '익산 미식식당전 - 닭요리대전'이 신설됐다. 요리축제 관련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2-3496-7824, nscook@naver.com)이며, '익산 미식식당전-닭요리대전' 관련은 익산시 위생과(063-859-5454)로 문의하면 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NS Cookfest가 2020년부터 익산 개최로 결정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돼 올해 다시 익산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사를 계기로 대한민국 식품 산업의 메카, 익산시의 입지를 다지고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동북아 식품 수도로 성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익산=이재춘 기자

추석 맞아 특산품 행복꾸러미 세트 출시

남원시 마을기업

남원시 마을기업들이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특산품으로 구성된 '행복꾸러미'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행복꾸러미는 6개 마을기업에서 직접 채취하고 생산한 농(특)산물로, 흥부마을 들기름, 웅치마을 들깨땅콩강정, 달오름마을 야콘한과, 누운골영농조합 지리산 잡화꿀, 지리산구절초영농조합의 구절초 꽃차, 지리산황치마을 현미·오분도미 수제 누룽지로 구성되었다.

행복꾸러미 판매가격은 한 세트 3만5천원으로 택배비는 남원시에서 지원하며 500세트 한정판이다.

구매 접수는 30일까지이며, 꾸러미 구매 관련 문의는 남원시공동체지원센터 사회적경제팀(063-620-5637~8)으로 하면 되고, 주문서는 사경팀 블로그(https://blog.naver.com/namwonse)에서 검색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마을기업

순창군마을기업협의회(대표 양양임)에서 2022년 추석명절을 맞아 관내 마을기업에서 생산한 지역특산품으로 구성된 '특별꾸러미세트'를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꾸러미는 순창마을기업협의회로서는 처음 시도하는 세트상품으로 복흥면 하마마을(영), 동계면 순창쌀엿(영), (영)가향식품 등 3개 마을기업에서 직접 생산한 유과와 강정, 조청, 도라지정과 등 추석명절에 어울리는 전통의 맛과 건강을 충실히 담았다.

꾸러미 판매가격은 3만 2000원으로 순창농협하나로마트, 순창군청 연금매점, 민속마을 농특산물 직판장 등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순창군 마을기업협의회(063-653-8885) 또는 경제교통과(063-650-1313)로 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예대금리차 첫 공시… 전북은행, '이자장사' 1위 오명

전북은행 가계 대출 예대금리차 6.33%로 19개 은행 중 가장 커
"중·저신용자 대한 중·고금리 대출 많아… 최대 8등급까지 지원"

은행권의 지나친 '이자 장사'를 막자는 취지로 대출·예금 금리 차이를 보여주는 '예대금리차'가 처음으로 공시된 가운데 가계 대출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곳은 전북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북은행은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늘어나 평균 대출금리가 오른 것이지 해당 통계로만 단순 비교하는 것은 지양해달라고 당부했다.

22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대금리차 비교' 통계에 따르면 7월 기준 국내 19개 은행의 예대금리차 정보가 공시됐다.

예대금리차는 월별 변동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산출된다. 이번 공시에서는 가계·기업대출을 포함한 대출평균 기준 예대금리차와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가 모두 포함됐다.

이는 금리인상기에 접어들며 대출금리가 급등하자 금융당국이 과도한 예대금리차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은행 간 금리경쟁을 촉진시켜 금융소비자의 실질적 편익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은행연은 앞으로 매월 20일 홈페이지 소비자포털에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 7월 기준 5대 은행의 가계 대출 예대금리차는 1.37% 포인트, 인터넷전문은행은 3.46% 포인트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계 대출 예대금리차가 가장 높은 곳은 전북은행으로 확인됐다. 전북은행은 가계 대출금리가 9.46%, 저축성 수신금리가 3.13%로 가계 대출 예대금리차는 6.33% 포인트로 나타났다.

전북은행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연계대출인 햇살론뱅크, 햇살론유스 비중이 높아 예대금리차가 커졌다고 은행연은 전했다.

5대 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의 가계 대출 예대금리차가 가장 컸다. 은행별로 △신한은행 1.62% △우리은행·농협은행 1.40% △국민은행 1.38% △하나은행 1.04% 순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에서는 △토스뱅크 5.60% △케이뱅크 2.46% △카카오뱅크 2.33%로 나타났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지방은행 특성상 상대적으로 중·저신용자 및 다중채무자에 대한 중·고금리 대출 비중이 높다"면서 "특히 신용등급 8등급까지 지원하면서 평균 예대금리차가 높아보이는 현상이 빚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연 관계자는 "은행별 대출 예금의 포트폴리오에 따라 예대금리차는 확대 및 축소될 수 있다"며 "실제 대출을 받을때 금리, 한도 등 상세 내용은 해당 은행에 문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시 개선을 통해 정확하고 충분한 금리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상반기 중 이번 공시체계 개선이 은행권 여·수신 금리과 소비자 부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지난해 상용분야 취업자 고용유지율 76%

전북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 고용유지현황 조사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전정희 센터장)는 지난해 센터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경력단절여성 4,738명 중 상용직 취업자 2,862명(60.4%)을 대상으로 7월 말 기준 고용유지현황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연 2회 실시하는 상용분야 취업자 고용유지율 조사는 취업자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새일센터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을 대상으로 고용유지 현황 뿐 아니라 퇴직 및 이직 사유, 직장생활 고충 토로, 경력개발 교육정보 제공 등을 제공하며, 1:1 유선 및 면접조사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2021년 직종별 상용직 취업자는 보건의료 분야가 전체 21.9%(62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제조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 20.4%(각 584명, 583명), 사무회계 분야 13.3%(382명) 순으로 나타났다.

상용분야 취업자 중 직종별 고용유지율 분석 결과 사회복지 분야에서 22.9%(500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보건의료 분야 21.6%(471명), 제조 분야 19.2%(419명)으로 조사됐다.

또 사회복지와 경비청소 분야가 타 분야에 비해 각 85.7%, 79.7%로 고용유지가 가장 높으며, 제조와 기타 분야에서 각각 49.1%, 44.5%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재취업 후 중도 퇴직자 681명을 분석한 결과 직장 부적응 232명(34.1%), 계약만료 및 폐업 96명(14.1%), 집안사정 86명(12.6%) 등의 사유로 퇴사했다.

한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영난이 악화돼 계약만료 및 폐업, 인원감원(34명, 5.0%) 등으로 인한 퇴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자녀 및 가족돌봄(49명, 7.2%)을 사유로 퇴사한 경우, 돌봄서비스의 중단으로 경력단절여성들이 다시 일터를 떠나게 되는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전정희 센터장은 "경력단절여성들이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데 있어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스스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취업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을 제공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취업지원팀(063-254-36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기자